



◇어려운 이웃돕기로 국민훈장과 장관표창을 받은 덕수스님(앞줄 맨 오른쪽)과 각현스님(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포상식후 기념촬영했다.

덕수스님 국민훈장 석류장 받아

각현스님 복지장관표창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

난한 이웃을 도와온 덕수스님은 지난 97년 5월 주지 부임이후 일주일에 한차례 재환원 고아원 양로원 나환 자촌을 돌며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또 IMF외환위기로 실의에 빠진 실직자와 결식 아동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무료 예식장을 운영, 영세민 100쌍의 결혼식을 올려주고 91년부터 매월 한차례 노인경로잔치도 열고 있다.

각현스님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봉사와 무료 점심공양, 노인재택서비스를 계속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탐골공원 결식노인과 실직자들을 위해 무료급식봉사에 나선 개그맨 김형곤씨와 조계사 청년회원들.

개그맨 김형곤 탐골공원 급식봉사

데뷔 20년 기념...조계사 청년회 동참

"여러분이 20년 동안 저에게 쏟아주신 사랑을 실컷 탕 한 그릇으로 다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개그맨 김형곤씨가 데뷔 20년을 맞아 팬들의 사랑을 사 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7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조계사청년회 보현부(부장 전준호)와 함께 탐골공원 건너편 새마을회관 경로식당에서 결식 노인과 실직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도필선 기자

주 일요일 탐골공원에서 벌어 오고 있는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해 직접 배식에 나선 김형곤씨는 이번 무료급식에 시가 3천5백원 상당의 냉동생선탕과 떡 1천개를 보 시켰다. 김형곤씨는 '공포의 생 삼겹살'로 잘 알려진 외식업체 (주)이바네다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조계사청년회장을 역임한 이바네다 지장수 사장의 소개로 조계사청년회와 인연을 맺고 함께 무료급 식에 나섰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지자체 무분별한 개발 저지"

'사찰환경수호 범불교대책위' 공동대표 여연스님

"한국적인 문화의 원천을 보이고 있는 곳이 사찰입니다. 그런만큼 사찰환경수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월 28일 결성식을 가진 사찰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대책위 공동대표 여연스님(조계종 중앙총회 사회문화위원회)은 최근 사찰수행환경이 지자체들의 개발계획에 의해 크게 훼손되고 있

다고 지적하고 범종단적인 조직이 결성된 만큼 국회 법개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21세기에는 문화의 화합과 화해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기에 환경문제 해결은 문화의 원천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점을 깨달아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까지 사찰환경과 관련 주변계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찰내 불사들도 친환경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에 사찰환경보존국을 설립, 사찰환경 조사및 연구, 불교와 환경에 관한 국내외교류, 지원이 신속히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교차로

길상사 석가모니불 봉안

법정 서을 길상사 회주 스님은 11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석가모니불 봉안식을 거행한다. (02)3672-5945

모범 재조사 초청 위로

현성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장 (중앙승가대 회장)은 7월26일 안양교도소 모범재조사 42명을 중앙승가대학 교로 초청해 교사와 개운사를 소개하고 점심공양과 다과, 책 <알기쉬운 불교>를 보시했다.

무의탁 어르신 위안 행사

도영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금산사 주지)은 7월29일 복지관에서 대전 거주 노숙·무의탁노인들의 재할 의지를 다지기 위한 '노숙·무의탁 어르신 위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북한동포돕기 주제 강연

법타 은혜사 주지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8월2일 대구 경산시민회관에서 주최하는 북한동포돕기와 평화통일을 위한 제3차 전국순례법회에서 "북한동포돕기와 평화통일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백령도 해병대 위문

석구 천태종 성통사 주지는 7월 25, 26일 '양일간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 제2여단 군법당 및 백령도 포병대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로하고 위문품과 불사 후원금을 전달했다.

영문암 수계산림 대법회

성각 경남 남해 망운암 주지는 7월 30일 망운암 금강계단에서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했다.

선원사 학생회 수련대회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2일부터 4일까지 강원 양양 보리수마을 큰 법당에서 학생회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도덕성 회복 순회강연

종실 대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소장 스님은 22일 청소년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도덕성 회복 순회강연'에서 '심격유형에 대한 이해 및 실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건강과 환경호르몬' 특강

강국희 성균관대학교 생명자원과학교수는 11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공채홀에서 열리는 대한불교진흥원 주최 제100회 다보문화강좌에서 '현대인의 건강과 환경호르몬'을 주제로 강연한다.

러 국립예술대서 석사학위

이정은 중앙합창단 반주자는 7월23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국립문화예술대학에서 'F·쇼팽의 스케르초에 대한 분석과 연구'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모든 것 마음에 달려있어요"

■용타스님 조계사 열린강좌 강연 요약



동사법회 지도법사로 유명한 용타스님(미국 삼보사 주지)이 7월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된 열린강좌에서 '내 인의 거울 닦기'란 주제로 강연했다. 3백여명이 참여한 이날 강연회에서 용타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주제를 통해 삶의 성찰에 대한 지혜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강의 내용 요약. <편집자 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공부다. 느낌을 가진 인간은 모두 마음공부인(人)이다. 스님이 미워서 수련하기 싫다고 하는 한 보살이 있었다. 이윽고 물어도 모른다는데 대답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님이 자신의 시아버지를 닦아서 그렇게 됐음을 깨달았다. 이 보살은 매사 정확하고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것이 많은 시아버지를 평소 두려워했던 것이다. 원인을 알고나니 보살은 수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는 악마가 법을 전하더라도 악마이기 때문에 법을 듣지 않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법을 듣는 자세다. 진리를 찾는다면 법사가 누구든 상관없다. 진리는 항상 설해지고 있는 것이니 배우겠다는 의지와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마음공부는 그렇게 스스로 하는 것이다.

마음공부 외에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루를 반드시 반성하라는 것이다. 송산 스님의 한 제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백여개의 항목을 체크하면서 하루 점검을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다채롭고 수시로 변하는 국면을 접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귀감 삼아 점검표를 만들어보라. 점검표의 기준은 5계와 8경 6바라밀이 좋다. 불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회향하는 삶도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깨달고 나서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설교하셨다. 이것이 곧 회향이다. 회향은 우리 삶의 일부이다. 내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뒤에 회향하는 회향이 아니다. 얼마나 배울고 사느냐와 같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재가연대 '중앙신도회 활동방향' 포럼

회장선출·운영 자율성 가져야



"중앙신도회는 조계종의 중지를 따르고 실행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운영과 사업, 회장 선출에 있어서까지 종단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불교바르세우기 재가연대" 정몽정 사무처장(사진)은 7월26일 재가연대 7월 정기포럼에서 '중앙신도회의 올바른 활동방향 정립을 위하여'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 중앙신도회의 운영과 사업이 실패한 것은 창립과정과 회장선출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처장은 "중앙신도회 운영이 과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신도회장 등 지도자들의 민주적 리더십 부족과 민주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신도조직의 풍토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총무원이 중앙신도회에 자율적 권한을 줄 때 신심과 원력이 있는 민주적인 인사가 신도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처장은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민주적 운영의 원칙 등을 중앙신도회의 운영 원칙으로 정제하고, 신도연합단체의 참여확대와 자율적인 중앙신도회장 선출, 재정운영비 확대, 신도교무금의 활용, 전국신도회와의 자연스런 통합 등을 제안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美 태권도 유단자들 사찰서 수련

Focus

"암!" 기합소리와 함께 태권도 품세가 허공을 가르다. 7월27일 팔공산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대불 앞, 미국태권도협회 시카고분회(분회장 권덕근) 소속 23명의 유단자들이 방한해 동화사와 불국사에서 사찰수련 및 체험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좌선 시간을 갖고 태권도 품세의 원형을 간직한 석굴암 금강역사상을 둘러보는 등 태권도 중추국인 한국인의 정신적 뿌리를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7월23일 입국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고 7월30일 출국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nia.com)

강원 학인이 의제를 반대하는 이유

옛 스님들 말씀에 "있는 법 없애지 말고, 새 법 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원은 '승통진작을 위하여 승가교육의 강화와 함께 위계와 위위가 엄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의제개혁은 너무 위계만을 강조하여 정각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교육원의 의제 시행령에 관해 계단위원회에서는 '웃은 생각만 있으면 어느 때고 바꾸어 입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복장의 차별화는 원래 취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오히려 출가인의 본분에 맞게 살도록 어떻게 수행력을 갖추어줄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의제만 시행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있습니다. 종단의 발전과 승통진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과 시대적 상황이 조화된 교육과 수행입니다. 그러나 교육원의 의제시행령은 승가의 위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헛되이 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있었던 '강원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학인대표들을 불러 놓고 정각 학인들에게는 의견수렴을 위한 발언권을 주지 않고, 추후에서 정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과연 대중의 권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라고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처님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정각 의제를 착용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위협적이며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과연 화합을 제할로 치는 승가의 의상이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에 처해 학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단의 대소사에서부터 개인의 수행정진에까지 수많은 번뇌와 고통을 안고 있으며, 출가의 본질적 이상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중수행처소와 전통적 수행방법에 대치되는 정책으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중의 공의를 무시한 채 몇몇 관계자들에 의한 검증되지 아니한 정책으로 전체 학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원의 의제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의지에서 차별화된 의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첫째, 부처님의 출가정신에 위배되며, 전통 승단체제인 총림체제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단의 첫째덕목으로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이 차별화된 의제는 화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며, 총림은 선원·율원·강원의 수평적인 각원체제로 구성되어 왔는데 의제를 실시한다면, 율원(비구)선원(비구사)마강원(사미)의 수직적 체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여타 파급이 우려됩니다. 둘째, 전통강원의 위상 약화와 기반이 흔들립니다. 교육원 시행령대로 의제가 실시된다면 총림내에서 차별화된 의제에 의한 위화감으로 강원보다는 기초선원이나 동국대와 승가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속가에서 화합을 저해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승리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한국 불교 교회의 질적인 퇴보를 초래하게 됩니다. 셋째, 비구(니)의 교학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본 교육기관을 마치고 구족계를 수지한 후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비구(니)는 강원이나 동국대, 승가대의 진학이 어려울 것입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가 사미의계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하지 않는다면 도반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화합을 저해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승리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한국 불교 교회의 질적인 퇴보를 초래하게 됩니다. 넷째, 학인들이 행하는 모든 의식과 대외 활동에서 신도들로 부터 수행자로서의 신심과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 총림과 본사급의 사찰에서는 거리가 사미인 학인들이 의식을 집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원 시행령에 의하여 의제가 강제로 시행될 경우, 학인들이 의식을 집전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일부 문제를 야기하는 승려가 있다고 하여, 학인들이 승가의 위의를 실추시킨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승가에서 있다면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인데 다수의 학인들을 구속 내지는 통제한다는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전통강원의 특성상 통째로 공간에서의 생활로 실제 짧은 기간(방학기간 약 2개월 전후) 이외에는 4년동안 강원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학인들이 승가의 위의를 실추하고 다닌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여섯째, 승가의 위계를 세우기 위하여 의제개혁을 한다는데, 왜 비구(니)와 사미(니)의 의제만을 구분지으려 하는가? 의제의 시행은 승가를 세속적 권위주의(등급제, 계급제)에 물들게 하는 위험이 있으며, 꼭 필요하다면 왜 비구(니)와 사미(니) 간에만 의제의 구분이 필요한가. 우리승가에는 옛적부터 품계제도가 있는데 품계에 맞게 전체적으로 의제를 실시해야 교육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않겠는가. 그리고 승가의 의제를 개혁하고자함에 터놓고 집단적 조직체도를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 아닌가? 일곱째, 강원학인들은 사미가사인 만의와 행정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무슨 구별이 필요한지 말입니까? 95년 개혁종단 출범이후 비구(니)와 사미(니)의 구분을 위하여 시행한 만의가 사 착용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각 강원에서는 행정을 착용하므로 학인신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모양이 좋지 않으며 여러 겹이 되어 습진 등의 각종 피부염의 부작용이 나타남에도 강제 실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 전통강원 학인 대중 일동은 의제실시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와 철회를 원합니다.

불기 2543년 7월 30일

동학사강원 범어사강원 법주사강원 백양사강원 봉녕사강원 불국사강원 삼 선강원 수덕사강원
송광사강원 쌍계사강원 운문사강원 직지사강원 청암사강원 통도사강원 해인사강원 화엄사강원 (가나다순)

전국 16개 전통강원 연합회 대중일동